

전남 관광단지 조성 민간투자 ‘저조’

도내 24곳 계획 대비 집행률 17.4% 그쳐 김기태 “집행률·상가·숙박 분양 높아야”

전남도가 6천만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도내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간부문 투자 집행률과 관광지 내 상가·숙박 시설 분양을 높이고, 전남도만의 특색 있는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남도내 민간투자계획이 있는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24개소이고, 총 조성계획투자비는 8조100억여원(공공 1조4천590억여원, 민자 6조5천516억여원)이며 이 중 2조1천129억여원(계획 대비 집행률 26.3%)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된 2조1천129억여원 중 공공부문(국비, 지방비)은 9천579억여원으로 조성계획 대비 집행률은 66%지만 민자 부문은 1조1천383억여원으로 계획 대비 집행률은 17.4%에 불과했다.

또한, 관광단지·관광지 내 상가·숙박 시설 분양률은 숙박 시설의 경우 총 분양계획 277만6천576㎡ 중 분양실적은 83만1천㎡로 분양률은 29.9%이고, 상가 시설 총 분양계획 71만829㎡ 중 분양실적은 20만9천939㎡로 분양률은 29.5%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기태(민주당·순천1) 도의원은 “민자유치 실패로 조성된 기반시설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 세금낭비로 이어져 사업의 재원조달 방식과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관광지 조성사업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과도한 민간투자계획을 지양하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이란 공공성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수익성 등 여건을 잘 조합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은 타 지방의 자연경관과 독특한 문화 등을 체험하는 것이므로 관광지 개발과 같은 하드웨어 확충과 함께 지방의 자연경관을 잘 가꾸고 전남이 갖고 있는 차별화된 문화상품과 관광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대부분의 민간투자 유치 개발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국가 예산 등 공공사업비로 도로, 전기, 상수도 등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조성한 부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분양해 관광시설물을 설치·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임재만기자

전남도, 일자리꿈터 청년 소통공간 확대 일자리 지원 얼라이브 라운지·일자리카페 구축

전남도는 19일 “목포 소재 일자리꿈터 청년들의 취업 지원과 소통, 창작 지원 등을 위해 얼라이브(All Live) 라운지와 청년일자리카페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3월 한국주택공사(LH)와 일자리 협력사업으로 목포 원도심 내 남교트윈스타에 일자리꿈터를 구축했다. 이어 5월부터 일자리꿈터 1단계 구축사업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코워킹스페이스 상담센터와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JOB-US)를 운영해 청년 구직자, 취약계층 등 146명을 취업시켰다.

또한 사회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 소셜벤처 등 스타트업 기업 9개에 창업공간을 제공해 보육함으로써 안정적인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소로 탐방했다.

5월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과 협업, 창작을 위한 ‘얼

라이브(ALL LIVE) 라운지’와 취업 상담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청년일자리카페 ‘수(秀)다방’을 구축했다. 이로써 일자리꿈터는 메이커 스페이스(작업공간), 열린책장, 공유사무실 등 다양한 일자리 콘텐츠를 제공하는 청년 소통 공간 역할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JOB-US) 운영을 65회에서 80회로 확대, 전남 지역 청년 및 취약계층에게 사각지대 없는 일자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신남 전남도 일자리정책본부장은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LH와 협력해 일자리꿈터를 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꿈터 활성화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진영 행안부 장관, 세계수영대회 준비상황 점검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앞 가운데)이 18일 오후 주경기장인 광산구 남부대수영장을 방문, 안전 관련 대회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지수 공개

광주환경공단 오늘부터

광주환경공단은 악취 오염도가 가장 높은 유타사업소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서구 치평동)의 악취지수를 20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악취지수는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 경계의 복합악취를 측정해 값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 하루에 두 차례 공개될 예정이며 다만 시설이 유타 IC와 인접해있는 까닭에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도록 악취지수 공개 전광판은 공단 정문에 설치됐다.

악취지수는 악취 복합측정기와 관능 시험법의 수치를 환산한 값으로 법적 배출허용기준 지수(15)와 측정값(평균 3

-5)을 함께 공개하며 추후 풍향, 기온, 습도 등의 자료도 보완해 전광판에 송출할 예정이다.

김강열 공단 이사장은 “음식물자원화 시설 악취지수 공개를 시작으로 슬러지자원화시설, 제1하수처리장 등의 악취지수까지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악취 발생을 최소화해 줄이는 등 시민들의 ‘환경 행복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최근 시민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발대된 ‘청정도시 광주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시설별 악취 관리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다. /최권범기자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농촌형 프로그램 인기

수도권·영남권 등 신청 쇄도...운영 한달만에 400여명 달해

전남도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농촌형 프로그램에 서울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영남권 등 각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농촌형 프로그램 운영 한 달째인 지난 15일까지 농협 청년농부사관학교 교육생 등 3개 단체를 포함해 총 426명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일반 신청자는 286명이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37

가장 참가자가 많은 신안 청푸름농촌교육농장에는 상반기에 46명이 신청했다. 장기 신청자가 많은 장성 편백숲마을은 14명의 신청자 모두가 60일을 마무리하며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이처럼 인기가 좋은 운영마을의 경우 참가 희망자의 신청이 많아 4월 말에 접수가 조기 종료되기도 했다.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농촌형 프로그램은 도·농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상·하반기 연 2회 운영한다.

전남지역 농어촌에서 머물며 농어촌 체험, 주민 만남, 주택·농지 구입에 필요한 정보 취득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면서 체류 기간에 따른 의무점수(1일당 1점)를 이수해야 한다.

전남도는 앞으로 만족도 설문 조사, 전입 여부 조사 등을 통해 프로그램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농촌형 외에 외지 청년들이 지역에 와 쉽고 체험을 통해 정착 기회를 찾도록 지원하는 ‘청년행복캠프 30days’를 내달부터 순천을 시작으로 5개 시·군에서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광주시민노동학교 1기 졸업생 104명 배출

광주형 일자리와 노사상생도시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개설된 광주시민노동학교가 16일 제1기 졸업생을 배출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광주시는 지난 16일 오후 광주시의회 예결위원회의실에서 ‘제1기 광주시민노동학교’ 마지막 7강과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1강부터 7강까지 모두 수강한 104명의 졸업생과 정중제 행정부시장, 윤종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박병규 사회연대일자리특보, 이기근 문화야 놀자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강의는 광주형 일자리와 노사상생도시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존중을 통한 지역발전의 추진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1기 교육은 지난 3월 윤종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의 ‘노동참여의 중요성’ 1강 교육을 시작으로 16일 박병규 사회연대일자리특보 강의로 마무리됐다.

하회십 시 노동협력관은 “광주시민노동학교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사회적 토대를 조성하고 노사상생도시 광주 만들기를 본격 추진하는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FUJIFILM

작은거인 X-T30

후지필름 TP존 광주점 (에이치디코리아)

신제품 미러리스 카메라 파격판매!

후지필름 TP존 광주점 오시는 길

TP Zone 이란?
Touch Point Zone의 의미로 후지필름 제품 및 서비스를 체험하는 All in one 서비스 매장으로, 각 지점에서 동일한 프로모션 및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점 062-522-2000
지점 062-350-8397
서비스센터 062-365-9999

GFX 50S GFX 50R X-T3 X-H1 X-T100 X100F